

南北國時代の 네트워크

尹, 載云
高句麗研究財団

<https://doi.org/10.15017/2198482>

出版情報 :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5, pp.49-77, 2005-03-15.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

権利関係 :



南北國時代の 네트워크

尹載云* (高句麗研究財團)

머리말

- I.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의 형성
 - II.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의 전개
 - 1. 네트워크의 성립기
 - 2. 발해의 무역 융성기
 - 3. 신라의 무역 융성기
 - 4. 9세기 후반 교역질서의 혼란·경쟁기
 - 5. 남북국의 육상 네트워크
 - III.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와 정부정책
- 맺음말

머리말

본고에서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경제적 域圈간의 사람·물자의 이동 체계를 가리키는 것¹⁾, 또는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성격인 ‘관계성(relations)’ 자세에 기초하여 다양한 연결 기능(신축·확장·팽창·가변·재편성·상호보완)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개념²⁾으로, ‘貿易網’이라는 개념은 기존연구성과들에서 交易體系·交易網 등으로 쓰이던 개념으로 신라나 발해 같이 국내에 한정된 경우만을 ‘貿易網’으로 사용하고자 한다.³⁾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해양네트워크가 중심이 된다. 해양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는 관계망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관계망(항구-항구間), 이동수단(조선술, 항해술 등), 네트워크 연결의 내용(인적, 물적 교류의 내용),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정부정책 등)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성립기인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네트워크 형성의 배경을 국내·국외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의 내용을 분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에 미친 국가정책의 특성과 영향을 검토하여, 네트워크 발전에서 정부정책의 역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의 형성

남북국시대 무역의 전체적인 양상에 대한 검토는,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국내학계의 기존 연구성과들은 무역형태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나라들과의 무역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일본학계에서 제기된 동아시아론·아시아교역권론과, Hugh R.

* 高句麗 研究財團 副研究委員

1) 浜下武志, 1997,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2) 家島彦一編·김정환 옮김, 2003, 『서양에서 본 아시아사』 『바다의 아시아』 1-바다의 패러다임-, 다리미디어.

3) 尹載云, 2003, 『8~9세기 동아시아의 교역-장보고의 청해진 활동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66, 26쪽의 註12.

Clark 이 제기한 중세무역사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신라·발해가 주변나라와 무역면에서 어떻게 연관을 가지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Hugh R. Clark 은 중국시장권을 북해무역과 남해무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당에서는 중엽이후 남방의 해로를 통해 다수의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廣州·揚州·泉州 등의 항구가 번영하였다. 이들 항구는 상품하역센터로서 交易港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담당했던 것은 南海貿易(중국남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다도해로부터 서쪽의 인도양과 유럽까지 포함)이었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北海貿易(동북아시아 지역 즉 平安時代의 일본, 발해, 신라)을 담당하고 있던 것은 신라인이었다. 이 남해무역과 북해무역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장보고로 대표되는 신라인⁴⁾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Hugh R. Clark 의 견해는 남북국시대의 무역을 중세세계무역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옳다고 할 수 있지만, 발해의 무역면에서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즉 발해의 대중국·대일본 무역에서의 역할과, 발해 상인들에 의한 대중국·일본 무역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일본학계의 ‘동아시아론’이다. 한반도·일본열도·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지역(이하에서는 특별히 밝히지 않는 限 한국·일본·베트남·중국을 지역 명칭으로 사용한다)은 일찍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한자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을 매개로 유교·울령·한역(漢譯) 불교 등 중국에서 기원하는 문화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역사 현상으로 인해 중국의 중심부를 포함하여 이들 지역을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견해⁵⁾도 있다.

이 문화권은 문화가 독자적으로 확장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독자의 정치구조(책봉체제)가 존재하며 이 정치구조를 매개로 중국문화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란 동아시아 세계라는 역사적 세계의 설정이 그 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니시지마는 당의 멸망으로 인해 국제적인 정치 질서로서의 동아시아 세계는 붕괴되었다고 해석하고, 이를 대신해서 경제적 교역권으로서의 동아시아 세계가 출현한다고 본다. 동아시아 교역권에서 무역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교역권을 확대,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일본·베트남 등지에서 행해지던 교역이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방면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는 19세기에 이르러 유럽 자본이 동아시아 세계에 미치게 되었을 때 정치적·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붕괴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문제가 있다. 우선은 동아시아 세계영역은 시대와 함께 변해왔다는 것이다. 다음은 관직을 매개로 한 관계야말로 책봉체제를 규정하는 내실로서 중시되고, 6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중국 왕조와 ‘동쪽 지역의 나라들’과의 정치관계가 실증적으로 검토되어 그것에 대해 책봉체제란 명칭이 붙여졌다. 엄밀하게 말하면 책봉체제란 한정된 시대(6~8세기)와 지역(중국과 그 동쪽지역의 나라들)에서 검증되고 이론화된 것으로,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다.⁶⁾

이상의 ‘동아시아론’이나 ‘동아시아 역사상’이 제기된 출발점은 동아시아사적 시점으로서 세계사와 일본사를 조망하려는 데 있었다. 전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세계사의 기본법칙’의 유용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극복되어야 할 구미중심 사관이며, 비교사의 방법도 후진국과 선진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 제약을 받는 상호관계를 간과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학계의 ‘아시아교역권’론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본학계에서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연구가 새로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80년대 후반 이후 논문이나 저서명에서 마치

4) Hugh R. Clark, 1993, 『한반도와 남중국간의 무역과 국가관계』 『장보고 해양경영사연구』, 도서출판 李鎭.

5)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6) 李成市著 박경희역, 2001,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 『만들어진 고대』, 삼인, 138~151쪽.

관용 접두어처럼 유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80년대 이후 90년대의 아시아적 시각은 역사학의 영역을 벗어나, 지리학·철학·민속학·정치학·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접근되었다. 연구대상과 시기가 워낙 다종 다양하여 하나의 논리로 묶어보기 힘들지만, 아시아적 시각 가운데서도 가장 논리적 구조를 갖추어 있는 것이 ‘아시아교역권’론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교역권론에서는 국경을 넘어서는 규모에서 기능하는 경제적 域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지역과 域圈 상호 제관계의 전체로서 하나의 이념과 원리 하에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各國史·各地域史의 전개도 그 아래에 자리잡는다고 본다.

아시아 국제시스템에서 域圈으로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것이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는 이질적인 세계를 자신의 논리 속에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 특성을 지닌다.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동이다. 물자·사람·돈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여, 정보가 전달되고 언어가 접촉하고 문화가 이동하는 것이다. 국경에 의해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로 열린 세계에서는 중심부보다도 周緣部, 그리고 양자의 관계가 중시된다. 그리고 지역적 공간을 매개로 아시아 고유의 국제 질서 시스템, 네트워크 그리고 사람·돈·물자의 이동을 통해 구성되는 세계로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곧 조공시스템이다.

이러한 그간의 아시아교역권론은 참조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아시아교역권론에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아시아교역권론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인간과 돈·물자의 교류에 치중한 결과, 교류가 항상 동반하는 마찰과 갈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하나의 역권이라도 그 속에 특정난 지역·민족 혹은 국가의 헤게모니가 존재하나, 상호 영향·상대적 독립과 異化라는 점만이 강조되고 있다. 해역의 세계는 관계의 세계이고 이동의 세계이지 생활의 세계나 定住의 세계가 아니다. 끊임없는 영토분쟁과 전쟁이 일었고 인간생활의 주무대인 육지를 열려진 세계로만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해역 중심의 균형 잃은 시각이 되기 쉽다.

둘째, 동아시아세계는 각국 집단이 단일언어,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장기간 지속해 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경제권으로의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국가와 민족 혹은 지역과 에스니시티 간의 마찰과 갈등, 헤게모니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⁷⁾

이상에서 일본학계에서 제기한 ‘동아시아론’과 ‘아시아교역권론’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다시 논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역권에 대해 살펴보자. 좁은 의미의 市場을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정난 장소라고 한다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크고 작은 여러 시장이나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廣義의 市場·市場圈·交易圈·貿易圈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⁸⁾ 8~9세기 당시 세계에는 크게 네 개의 廣域 市場圈이 있었다. 즉 中國市場圈, 南아시아市場圈, 西아시아市場圈, 地中海市場圈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4개의 광역시장권 가운데 신라와 발해가 속해 있던 곳은 중국시장권이다. 이 중국시장권의 중심국가인 중국과 중국시장권안에 있던 여러 나라와 민족을 연결시켜주던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朝貢이다.

신라·발해·일본 등 중국의 주요한 관계국들에게 조공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원적으로 기능하지 않았고, 중화관의 공유와 수용뿐만 아니라 저항이나 자립의 과정도 존재한다. 또한 러시아 등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와는 달리 중국에 영향을 주거나 互市交易(대등한 교역)을 행하는 등 북서주변부에 있어서 조공관계의 기능은 중국 동쪽의 여러 나라와는 다른 것을 나타낸다.

7) 하세봉, 1996, 『일본학계의 ‘아시아교역권’론』 『中國現代史研究』2, 중국현대사연구회; 2001, 『동아시아 역사학의 생산과 유통』, 아세아문화사, 213~231쪽.

8) 松井透, 1999, 『商人と市場』 『岩波講座 世界歴史』15-商人と市場-, 岩波書店, 10쪽.

동아시아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과의 가깝고 먼 것에 따라 나라별로 구분되었다. 조공관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드러나는 관계로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琉球나 對馬島 등의 중계적·매개적 기능은 중시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부 즉 위성적인 중화권이 배치되고 서로가 다각적으로 중계지를 매개로 연결하는 복합적 지역관계도 있었다.⁹⁾

결국 朝貢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동아시아 무역망을 형성시킨 전제이고, 조공무역에 수반한 사무역의 확대를 촉진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 내 교역의 주요한 루트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시장권이라는 광역시장 안에는 여러 시장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신라와 발해와 관련 있는 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산동반도 일대의 교역권이다. 이는 장보고로 대표되는 신라상인들의 활약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신라상인의 활약은 재당신라인사회와 재일신라인사회를 기반으로 하였다. 당과 일본에는 7세기이래 신라유민이 이주하여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유민이 발생한 것은 통치기강의 문란과 토지의 집중화현상에 따른 부산물이었다. 게다가 자연재해라는 요인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¹⁰⁾ 이들 유민들은 때로 도적화하기도 했고 지방세력의 휘하에 들어가 사병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중 일부는 중국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¹¹⁾ 특히 이들은 재당신라인사회나 재일신라인사회에 흡수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에서의 신라인촌락은 초주·해주를 비롯한 회하유역과 산동반도 일대에 많았고, 일본에서의 신라인사회는 九州와 下毛野國·武藏國·美濃國·近江國·駿河國 등에 있었다. 재당신라인사회는 ‘新羅坊’이라 하였는데, 인구가 많은 외국인 거주구역인 ‘番坊’의 하나였다. 재일신라인사회는 新羅郡 또는 度田郡 이라 불리웠다. 재당신라인들은 주로 거주지역 근처의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었고, 재일신라인들은 일본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바다 관련 고급인력(통역관·선원·노 젓는 사람 등)을 제공해 주었다. 즉 해외 신라인민사회가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소규모 지역시장을 관장한 연안무역상인이었다면 장보고로 대표되는 광역시장을 담당하는 무역상인도 존재했던 것이다.¹²⁾ 이외에 이연효¹³⁾·이광현¹⁴⁾ 같은 발해상인들의 존재도 주목된다. 이상의 신라·발해상인들에 의해 산동반도에서 행해진 무역은 黃海를 주무대로 행해졌기 때문에 ‘黃海貿易圈’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경우이다. 중국의 경우에 비해서 빈도수나 양은 적지만 대일본무역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일본무역의 장소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大宰府를 중심으로 하여 신라 사절단과 신라상인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해사절단에 의해 일본의 동북부 지방의 발해객원·객관에서 행해진 경우이다. 전자는 대한해협을 거쳐 일본의 서쪽지역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西部日本貿易圈’으로 정의하고, 후자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행해졌기 때문에 ‘東海貿易圈’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조공무역(공무역)의 발전은 중국 주변 여러 나라들의 사무역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9세기 사무역의 발전은 이전 시기의 공무역 발달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조공에 대해서는 주로 정치적 관점에서만 이해되어 왔으나 이에 못지 않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해석도 필

9) 濱下武志, 1997, 앞의 책, 5~11쪽.

10) 『三國史記』에 나오는 신라의 자연재해는 총 143회인데 그중 신라하대에 해당하는 8·9세기에는 각각 29·16회로 다른 세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申澄植, 1981,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87~188쪽).

11) 『三國史記』卷10, 憲德王 8年, 春正月條.

12) 尹載云, 1999a, 『韓國 古代 貿易의 形態』『先史와 古代』12.

13) 馬一虹, 1999, 『渤海と唐の關係』『アジア遊學』6.

14) 朱越利, 1993, 『唐氣功師百歲道人赴日考-以“金液環丹百問訣”爲據-』『世界宗教研究』3期,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王勇, 1999, 『渤海商人李光玄について』『アジア遊學』6; 임상선, 2000, 『“渤海人”李光玄과 그의 道敎書 檢討』『韓國古代史研究』20, 한국고대사학회, 656쪽.

15) 尹載云, 2002, 『南北國時代 貿易研究』,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4~30쪽.

요하다. 단순히 중국왕조가 주는 官爵이나 印綬 그리고 衣服 등이 집단 자체 내에서의 지배자나 지도자의 정치·사회적인 권위를 높여주는 효과 때문만은 아닐 것이며 보다 실질적인 목적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중국 정부만이 취급하는 일정한 물품을 획득하는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朝貢과 下賜의 형식을 통해 물자교역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¹⁶⁾

南北國時代 조공사절이 唐에 入朝할 경우, 唐에서 그들에 대한 대우를 총괄하는 것은 禮部이고, 主客郎中이 그 중심이었다. 鴻臚寺·典客署는 그 중에서 주로 長安에서 그들의 접대를 禮部와 연락을 취하면서 관할하는 것이었다.

조공사절이 唐에 도착하면, 그들은 邊境州縣에서의 취조→ 중앙으로부터 入京 허가자 리스트의 도착→ 入京者 上京→ 京師 도착→ 영빈관 입소→ 환영의식 출석→ 황제알현일의 전달→ 황제알현→ 당으로부터의 國書수여→ 임시하사물 수령→ 귀국할때의 의식→ 歸途(대기자와의 합류)→ 歸國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이상의 과정 중에서 교역품(헌상품)은 의식장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州縣으로부터 鴻臚寺로 연락이 갈 때, 낙타·말 같은 종류는 중앙에 바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州縣이 그것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기이한 동물의 헌상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唐에서 외국사절에 답례품을 주는 경우는 연회를 할 때이다. 선물을 줄 때는 헌상품의 가치에 따랐기 때문에, 헌상품의 가치결정은 불가결한 것이었다. 만일 가치가 불명확한 경우는 鴻臚寺가 小府監이나 市司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서성에 보고하였다. 이렇게 의식적 행위인 回賜로서 수여된 중국으로부터의 하사품은 주변 나라들이 화이질서를 유지하고 기능시키는 것에 대한 중국측으로부터의 비용 지불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사절로부터 당에 건너온 물품은 『大唐開元禮』 ‘皇帝受蕃使表及幣’에 ‘幣’¹⁷⁾와 ‘庭實’¹⁸⁾이라고 기록되었듯이 두 종류의 헌상품이 존재하였다. 또한 당으로부터의 답례품도 연회장에서 주는 물품과는 별도로 사절의 귀국 환송장에서도 賜物의 수여가 있어서, 이것도 외국으로부터 두 종류의 헌상품에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당왕조측의 조공무역관리는 조공관계를 맺은 國名은 禮部 主客郎中和 鴻臚寺·典客署에서 기록하였고, 무역품목·액수는 戶部가 기록하였다. 또 물품의 보관은 太府寺가 관리하였다.¹⁹⁾

위에서처럼 下賜와 朝貢의 형식을 통해 상당량의 물자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朝貢과 官爵, 印綬의 수여를 통한 중국 정부와 신라·발해 사이의 물자교류형태를 조공무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공무역은 교역형태상 직접적인 교섭에 의한 교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직접 접촉에 의한 교역’은 교역과정에 제3의 중개인이나 중개장소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 같은 무역형태에서는 교역활동이 정치지배자에 의해 조직되고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²⁰⁾ 아울러 Karl Polany가 언급한 증여교역에 해당한다.²¹⁾

한편 중국정부와 신라·발해에서 파견된 遣唐使 사이에 직접 물자가 거래된다는 점에서 조공무역은 公貿易의 성격을 가지며,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간의 사적인 교역과는 구분된다.

다음으로 對唐貿易에서 조공무역과 구별되는 것으로 互市를 통한 교역을 들 수 있다. 互市의 설치와 운영은 중국 황제의 허가에 의해 소재지 정부나 관인의 관리와 감독하에 행해졌다. 일반적으로 互市에서 교환하

16)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266쪽.

17) 幣란 帛 같은 비단을 중심으로 하는 方物, 貢獻品을 말한다.

18) 庭實이란 정원에 가득 찬 貢物이란 의미다.

19) 石見清裕, 1997, 「唐代外國貿易·在留外國人をめぐる諸問題」 『魏晉南北朝隋唐時代史の基本問題』; 1998,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505~508쪽.

20) 崔夢龍, 1985, 「古代國家成長과 貿易」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57~61쪽.

21) Karl Polany, 1977, *The Livelihood of Man*, Academic Press; 朴賢洙譯, 1983, 『人間の 經濟』 I, 도서출판 풀빛, 141~144쪽.

는 것은 말이나 소·낙타 등이었다. 남북국시대의 例로는 李正己 一家가 지배하던 시기의 淄青藩鎮과 발해사이의 교역을 들 수 있다. 이 때 唐側이 주는 것은 발해 지배층이 필요한 絹·帛 등의 직물이어서, 소위 ‘絹馬貿易’이라고도 불렀다.²²⁾

이상에서처럼 무역의 주체에 의해 무역의 형태를 公貿易과 私貿易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남북국시대 公貿易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바로 빈번히 唐에 파견된 遣唐使였다. 遣唐使들은 본국의 왕을 대신하여 貢獻品을 獻上하고, 그 과정에서 본국왕에게 주는 回賜品과 사절단 개인에게도 관등의 高下에 따라 回賜品을 받았다. 따라서 公貿易의 주체는 남북국시대의 王室과 遣唐使로 파견된 중앙귀족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朝貢을 매개로 형성된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시장과 각 지역에 형성된 지역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사와 관련된 지역시장은, 중국중심의 광역시장 아래 ‘黃海貿易圈’·‘西部日本貿易圈’·‘東海貿易圈’ 등이었다.

II. 南北國時代 네트워크의 전개

1. 네트워크의 성립기(618-754년)

남북국시대 네트워크 형성의 외적인 계기로는 唐의 건국을 들 수 있다. 전근대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는 중국대륙의 정치·사회 변동에 매우 민감하였다. 7세기 전반 唐의 건국에 이은 신라의 삼국통일, 10세기 초 5代10國의 혼란과 후삼국의 鼎立 그리고 宋과 고려의 건국, 14세기말 元·明 교체와 조선왕조의 등장과 같이, 한국은 중국 왕조와 운명을 같이하는 듯이 보일 정도로 양국관계가 밀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對中外交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았음을 암시해 준다.

한국의 대외교역은 고조선과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隋·唐 이전에는 상호 침략에 의한 적대적 관계 혹은 간헐적인 사신 왕래를 통한 단속적인 교섭에 그쳤다. 6세기 후반 隋가 중원을 통일한 후 한반도의 삼국은 隋에 빈번히 사절을 보냄으로써 양 지역간의 정치·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隋나라는 3代 38년만에 망하고 唐이 그 뒤를 이었다.

中原을 재통합한 唐은 세계제국을 표방하면서 주변국들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백제·발해·吐蕃·突厥·契丹·回骨·波斯國 등 수많은 주변국들이 당에 사절단을 보내어 당과 정치적 유대관계를 맺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당문화를 습득하기 위한 유학생과 求法僧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각종 상인들이 당나라에 모여들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발해의 왕래도 빈번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25회, 신라는 178회의 각종 사절단을 보냈음이 확인된다. 전근대에서 외교와 무역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간의 정기적·항속적 외교관계가 시작된 당 건국 이후가 네트워크의 형성시기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형성의 내적인 배경으로 우선 신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후기²³⁾의 무역발전의 국내배경으로는 王京에 시전의 증설과, 지방제도의 정비에 의한 거점도시의 시전설치를 들 수 있다. 아울러 대중국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서남해도서지방의 장악도 신라의 기간도로인 5通을 비롯한 유통망의 정비에 큰 기여를 했다. 다음으로 公貿易과 私貿易의 각각의 주체들에 의한 무역품의 제작이 궁중수공업·관영수공업·민간수공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한편 발해는 건국기(高王~武王)의 꺾끄러웠던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각종 정치제도의 정비·말갈부

22) 馬一虹, 1999, 앞의 논문, 52쪽.

23) 本稿에서의 신라후기는 삼국통일전쟁이후의 시기로, 기존에는 통일신라로 불리던 용어이다 (최광식, 1995, 「韓國 古代國家의 支配이데올로기」 『韓國史의 時代區分-古代·中世-』, 신서원, 150쪽).

족정복 등을 이루고, 新羅道の 개통, 대일무역과 대중국무역의 활성화를 이룬 文王 전기가 貿易網이 성립한 시기로 판단된다.

2. 발해의 무역 융성기(755-827년)

이상에서 살펴본 남북국시대의 네트워크를 주도했던 것은 발해·신라인이었다. 이 시기 唐은 閉關과 海禁 정책을 세우고, 자국민이 바다로 나가 사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唐은 그 결과 발생하는 무역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국가의 공무역 사절단의 입당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즉 당과 외국의 무역은 공무역인 조공무역의 형태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 중엽 安史의 亂 이후로는 藩鎮勢力이 강화되자 사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²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唐人을 필두로 하는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9세기 후반부터였다.

<표> 발해 무역융성기의 왕래

출발지 \ 도착지	발해	신라	唐	일본	계
발해		?	63	20	83
신라	2 + α		41	5	48 + α
당				1	1
일본	11	1	4		16

먼저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발해였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대로, 황해무역권의 중심지였던 산둥반도일대에 가장 많은 항해를 했던 것은 발해였다. 발해가 신라보다 우위에 섰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760년대에 재개통되었던 新羅道는 신라와 발해의 문물교류에 큰 역할을 한 주요 교통로였다. 기존의 新羅道에 대한 견해들은 발해의 교통로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미 부여가 분명한 반면에 新羅道만은 그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인 통교의 흔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견직물의 교류를 통해 볼 때, 남북교섭의 적극적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新羅道の 운영인 것이다. 다음으로 발해는 安史의 亂 기간의 당 중앙정부와 반란군 사이 중립적 입장, 고구려 유민 李正己의 淄靑藩鎮과 당 중앙정부사이의 적절한 외교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무역면에서 신라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공무역의 가능자인 遣唐使의 파견횟수나 산둥반도지역과의 絹馬貿易, 발해상인들의 활약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이러한 대중국무역에서 발해의 신라에 대한 우위는 이르면 淄靑藩鎮의 소멸시기인 819년, 늦어도 淸海鎮이 설치되는 828년까지는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安史의 亂 후 청해진 설치 이전의 시기까지 대일무역에서도 발해의 우위는 확인된다. 신라는 779년을 끝으로 더 이상 공식적인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다. 반면에 신라침공계획의 무산으로 소원했던 일본과 발해의 외교관계는 771년에 文王이 다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열리게 된다. 이후 康王·定王·簡王을 거치면서 渤海客院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일무역이 전개된다.

3. 신라의 무역 융성기(828-851년)

발해의 뒤를 이어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한 것은 신라였다. 청해진이 설치되어서 폐쇄될 때까지 23년

24) 王杰·王莉, 2000, 「張保臯大使의 海洋經營과 韓·中間 發展方向」 『張保臯大使의 海洋經營과 21世紀 韓國 海軍의 海洋安保』, 제8회 艦上討論會, 해군본부, 114~118쪽.

동안 신라는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강자로 군림하였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보면 전시기에 발해와 신라의 중국 항해 회수가 3:2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12:11회로 거의 대등하게 되었다. 이 횟수는 기록에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교섭 즉 외교사절단의 파견위주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일부 보이는 신라인 등의 활동을 고려할 때, 장보고를 필두로 하는 신라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신라 무역흥성기의 왕래

출발지 \ 도착지	발해	신라	당	일본	계
발해		?	12	2	14
신라	?		11	?	11
당				7	7
일본	0	0	1		1

828년 청해진의 설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당과 일본에 형성되어 있던 재당신라인사회와 청해진, 재일신라인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동북아시아 지역 무역의 번영을 촉진하였다.²⁵⁾

둘째, 신라 鎭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즉 중국에서 활동한 장보고의 건의에 의해 설치된 청해진의 성공에 고무된 신라조정 대응으로 인한 당성진을 비롯한 잇단 해상교통 요충지에의 鎭 설치, 9세기 당시 활발했던 대외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 그리고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계속된 자연재해와 지방세력의 성장에 의한 중앙정부 재정의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정정은 육상·해상교통의 요충지 장악과 아울러 재정확보 차원에서 경제적 요충지에 진을 설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²⁶⁾

셋째, 당·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지역 무역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828년에서 장보고가 암살 당한 841년까지 활발했던 발해의 遣日使가 전혀 파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다.²⁷⁾

이상의 세가지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산동반도부터 淮河에 이르는 중국 동남해안의 황해무역권과 大宰府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일본무역권을 신라가 확실히 장악했음을 알 수 있다.

4. 9세기후반 교역질서의 혼란·경쟁기(852-926년)

〈표〉 9세기후반 교역질서 혼란기의 왕래

출발지 \ 도착지	발해	신라	당	일본	계
발해		1 + α	3	9	13 + α
신라	?		18	?	18 + α
당	0	0		7	7 + α
일본	0	0	0		0

※907년 당멸망 이후 신라와 5대의 교섭은 미포함

25) 尹載云, 1996, 「9世紀前半 新羅의 私貿易에 관한 一考察」『史叢』45.

26) 尹載云, 1999b, 「新羅下代 鎭의 再檢討」『史學研究』58·59합집.

27) 윤재운, 2001, 「발해의 왕권과 대외무역」『韓國史學報』11, 고려사학회.

851년 청해진의 혁파는 장보고에 의한 무역독점이 해소되었고, 신라 각지에서 해상세력이 대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상세력은 호족중의 일부로 보여지는데, 康州의 왕봉규, 金州의 李彦謨, 울산의 박윤웅, 개성 지방의 왕건집안, 나주 오씨, 영암 최씨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신라 중앙정부에 의한 무역 장악노력(해상 요충지의 鎭)도 보이고 있고, 민간무역업자들의 등장도 엿보인다. 결국 각계각층에 의한 활발한 무역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청해진혁파의 영향으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청해진에 의한, 신라에 의한 동북아시아 무역독점의 주도권이 바뀐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에 왕래한 상인의 명단과 일본에서 출토되는 도자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鴻臚館이 史書에 처음 보이는 것은 847년 入唐僧 圓仁 등이 귀국한 자료로, ‘홍려관앞에 이르렀다’라고 나온다. 그후 貞觀年間(859~876)에 집중해서 보이지만, 1091년 大宋商人 季居簡이 다라니경을 비교한 기사를 최후로 모습을 감춘다. 따라서 홍려관의 전신인 筑紫館 시대를 포함하여 홍려관이 두어진 시기는 400년 이고, 외교기관과 교역의 거점으로서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 오랜 기간을 陶磁貿易의 관점으로 나누면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① 8세기말에서 9세기전반, ② 9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전반이다. 이같이 시기구분 하는 것은 각 시기의 도자무역 상인이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②시기는 중국에서 당상인이 교역의 중심을 담당하던 시기이고, ①시기는 신라상인이 중심이었던 시기이다.²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에 간 상인관련 자료이다. 9세기의 ¼분기와 그 이전 8세기대에 당상인의 내항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承和年間(834~847)까지 일본에 간 상인은 당·신라인이 혼재하고 있어서, 그 뒤에 일반적인 당 상인만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 경우 흥미있는 것은 초기무역도자기의 출토지가 平城京과 大宰府 관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후자에 많다는 점이다. 이런 실태는 신라사가 가져온 화물이 平城京과 대부분은 鴻臚館에서 매매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大宰府를 중심으로 西海道 관청이나 관내 사원에서의 舶載貨物의 유통이 가능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청해진 혁파의 영향으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대일무역의 양상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장보고 사후 청해진을 통해 계속 대외교역을 장악하려 했던 염장의 의도에 대해 청해진의 잔존세력들이 계속 반발하면서 신라상인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와 함께 재당신라인들은 당과 일본간의 교류에서 신라를 경유하지 않고 南路를 이용하여 일본과 직접 교역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신라에 대한 반감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보다 유리하게 교역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당상인이라 칭하면서 교역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⁹⁾

즉 9세기에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대외교역을 담당했던 신라상인들의 동향은 9세기 전반까지는 청해진을 정점으로 한 거점교역에서, 9세기 후반에는 재당신라인과 한반도의 신라 상인으로 나뉘어져 각기 대일교역에 참가하는 교차교역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841년에 장보고의 사후, 신라의 소란과 무역관계의 파산에 의해 大宰府나 瀬戸内海지역에 혼란이 생겨 일본정부는 842년 8월에 신라인 入境을 금지하고, 鴻臚館에서 신라인과의 무역관계를 폐쇄하는데 이르렀다.

이리하여 842년 교역통제에 의해 大宰府 鴻臚館에서 배제된 신라연해지역의 상인집단 일부는 다른 교역장소를 찾거나, 해적이 되어 일본 연해안에 출몰하였다.³⁰⁾

28) 龜井明德, 1992, 「唐代陶磁貿易の展開と商人」『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Ⅲ 海上の道, 東京大學出版會, 131쪽.

29) 南漢鎬, 1997, 「9世紀後半 新羅商人の動向」『靑監史學』創刊號.

30) 李炳魯, 1996, 「寬平期(890년대)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일고찰」『日本學誌』16; 山崎雅稔, 2000, 「貞觀八年應天門事件と新羅賊兵」『人民の歴史學』146; 山崎雅木稔, 2001, 「貞觀十一年新羅海賊來寇事件の諸相」『國學院大學大學院紀要』32.

이후 후백제, 태봉(후고구려), 신라에 의한 후삼국의 정립은 난립하던 해상세력의 재편을 요구하게 되었다. 각각의 해상세력들은 세 나라로 흡수통합 되어간다. 하지만 후백제 지역에 있던 나주 오씨와, 영암 최씨는 왕건에 협력하여 왕건의 나주공략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이후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의해 중앙귀족화한 나주 오씨와 영암 최씨는 해상의 기반을 떠남으로서 서남해안의 무역활동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³¹⁾

5. 南北國의 육상 네트워크

신라와 발해 양국이 교섭했던 사실은 발해와 신라 사이에 ‘新羅道’³²⁾가 있었고, 신라 泉井郡으로부터 발해의 柵城府까지에 걸쳐 39개의 驛³³⁾이 있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사료에 몇 차례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교섭도 바로 이 신라도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길을 많이 이용했을 대상은 경제와 문화교류의 주인공인 민간인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⁴⁾

新羅道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5-1. 용원부의 동남쪽은 바다인데 일본으로 가는 길이다. 남해부는 新羅로 가는 길이다. 압록부는 朝貢하는 길이다. 장령부는 영주로 가는 길이다. 부여부는 거란으로 가는 길이다.

(『新唐書』卷219, 北狄列傳 渤海)

5-2. 발해국의 남해, 압록, 부여, 책성의 4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신라 정천군으로부터 책성부까지 39개의 역이 있다.

(『三國史記』卷35, 地理志, 賈耽 古今郡國志)

5-3. 渤海의 전성기에 日本과 往來가 빈번하였다. 남으로는 新羅와 국경을 맞대어 道路가 통하였는데, 어찌 사신의 왕래가 없었겠는가? 또한 渤海의 交通로인 五道 가운데에 南海府를 新羅道로 삼았으니, (이는) 兩國 통교의 명확한 증거이다.

(『渤海國志長篇』卷19, 叢考, 渤海後志2)

위의 사료 5-1은 발해의 대외교통로를 설명하는 중에 남해부가 新羅道였음을 언급한 내용이고, 사료 5-2에서는 책성부에서 신라 국경인 천정군까지 39개의 역이 있었다고 하여 新羅道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료 5-3을 통해서도 발해전성기인 문왕대에 신라와의 교섭이 新羅道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新羅道の 설치시기에 대해, 여호규는 4세기 무렵 고구려가 이용한 교통로에서 그 연원을 찾고 있는데, 국내성에서 두만강 하류에 이르는 東海路가 그것이라고 보았다.³⁵⁾ 이외에 8세기 특히 문왕대 전기인 721~757년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³⁶⁾ 그 근거로는, 757년에 쌓은 탄항관문에 주목하였는데, 이 관문은 이미 721년에 쌓은 장성에 기초한 것이다. 나아가 탄항관문 축조를 계기로 그 이전과 달리 신라와 발해는 교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新羅道에 관한 기록이 실려있는 책의 서술시점을 근거로, 新羅道가 9세기 중엽까지 신라와 발해 양국 간의 상설교통로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³⁷⁾ 즉 『三國史記』에 인용된 가탐의 고금군국지는 당시

31) 姜喜雄, 1977,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 7.

32) 『新唐書』卷219, 北狄列傳 渤海.

33) 『三國史記』卷35, 地理志 2; 『三國史記』卷37, 地理志 4.

34) 韓圭哲, 1994, 『渤海의 對外關係史』, 신서원, 11~12쪽.

35) 余昊奎, 1995,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남도와 북도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91, 27쪽.

36) 宋基豪, 1993, 「渤海 文王代의 개혁과 사회변동」 『韓國古代史研究』 6, 74~75쪽.

37) 趙二玉, 2001,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研究』, 서경문화사, 181~182쪽.

중국을 왕래하던 외국 사신들의 견문을 참고로 간행된 지리서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 책은 『舊唐書』가탐열전에 의하면, 당 덕종 정원 17년(801)에 간행된 것³⁸⁾으로 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양국은 新羅道를 매개로 빈번하게 왕래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新唐書』의 발해 관련 서술은 張建章의 『渤海國記』를 참고한 것이다. 장건장은 유주절도사의 막하에 있던 문종 태화 4년(833) 발해에 사신으로 부임하였다가, 태화 9년(835)에 귀국한 뒤에 『渤海國記』를 저술하였다. 따라서 760년 전후에 개통된 新羅道는 9세기 중엽까지 양국간의 상설교통로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鈴木靖民은 남경남해부는 북한 함경남도 북청군의 청해토성에 비정되어지며, 동해를 따라 남하하는 新羅道를 수비하였을 것인데, 이 길이 신라와의 교통을 목적으로 했는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³⁹⁾

최근에 방학봉은 新羅道の 구체적인 노정과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즉 新羅道를 동서 육상교통로와 동서해상항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⁴⁰⁾ 해상항로 가운데 동해바다를 통하는 길은 남해부의 吐號浦에서 떠나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경주에 이르는 길이다. 이외 또 서해바다를 통해 경주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 노선에 대해 『新唐書』⁴¹⁾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⁴²⁾

결국 이를 통해 보았을 때, 新羅道는 발해 때 설치한 交通路로서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고구려시대부터 동해안의 주요 交通路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와 발해는 新羅道를 통하여 적어도 9세기 중엽까지 활발한 교섭을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에는 양국간의 교류의 주목적이 정치적이었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만 경제적인 교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는 짐작만 하였다.⁴³⁾ 그리고 문왕대 말기인 원성왕대에 한 차례 사신이 파견된 사실⁴⁴⁾로 미루어 보아 정치적인 교섭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다. 즉 8세기 중엽에 이르면 양국관계는 대립보다는 친선과 교류가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新羅道를 통한 남북국 경제교섭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견직물의 교류이다. 발해인은 신라인과 같이 해상무역에 진출하였고 육상교역에도 활약했지만, 수입품은 항상 견직물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였다. 그 수입품을 보면 견직의 본고장인 중국은 물론 멀리 일본에까지 이것을 구하고 있다.

해동성국을 구가한 발해의 융성은 지배계급의 호사스런 생활을 지원하는 외에 일반 海人이나 여진인의 생활도 향상시켰을 것이다. 발해의 신라산 견직물 수입도 일반적인 紬·絹·錦으로부터 고급품인 魚牙·朝霞錦 등의 錦紬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였을 것이다.

결국 신라는 재래의 錦紬생산의 증가외에 朝霞·雲霞·魚牙錦이나 朝霞·魚牙紬 등 신라독자의 고급견직물을 생산하여 중국·발해·소고구려에 수출하였고, 소고구려에 수출된 朝霞錦·魚牙錦은 거란으로 넘어가 거란으로부터 중국에 공헌되었다. 요동으로부터 거란을 경유하여 중국에 수입된 것은 발해·소고구려·거란에 들어갔던 신라산 錦絹紬로 그 지방에 있던 퉁구스계통 유목민족의 생산품은 아니었다.⁴⁵⁾

이러한 사실은 발해의 뒤를 이어 만주지방을 지배했던 遼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려의 對遼貿易

38) 『舊唐書』卷138, 列傳88, 賈耽.

39) 鈴木靖民, 1998, 「渤海の國家構造」『しにか』9월호, 16쪽.

40) 日野開三郎은 발해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중국이고, 중국 다음의 무역상대국은 신라라고 하면서, 신라와의 무역로는 함경도 南京南海府부터 신라 東北境에 이르는 노선이 있지만, 별도로 西京鴨綠府관하의 桓州(오늘날의 집안)부터 滿浦를 경유하여 신라의 西北境에 이르는 노선이 있었는데, 민간상인중에는 후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日野開三郎, 1968·1972, 「國際交流史上より見た 滿鮮の絹織物」『朝鮮學報』48·63; 1984,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叢』9-北東アジア國際交流史の研究(上)-, 三一書房, 376쪽).

41) 『新唐書』卷43下, 地理志.

42) 方學鳳, 2000, 「渤海遺址로부터 본 新羅道」『中國境内 渤海遺蹟研究』, 백산자료원, 399~409쪽.

43) 이용범, 1978, 「발해의 성립과 그 문화」『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93쪽.

44) 『三國史記』卷10, 元聖王 6년.

45) 日野開三郎, 1984, 위의 책, 362~364쪽.

수출품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직물류였다. 직물류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것이 絹이다. 원래 거란인은 유목민족이었던 만큼 거란인의 전통적인 의류는 文皮라 불리던 호·표피 등의 동물가죽으로 5세기 중엽 거란이 교역을 시작했을 당시 거란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다.⁴⁶⁾ 이들 동물가죽은 방한의류로 우수한 반면 세탁상의 어려움으로 비위생적이며 내의용으로는 부적합했을 것이다. 견직물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은 물론 촉감이나 미관상으로도 수려하여 거란인의 絹에 대한 애호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遼의 견직물은 점령지역의 한인에 의해 대릉하를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거란지역에서 생산된 견직물로는 수요량에 태부족이었고, 이외에 중요한 공급로는 송으로부터의 유입이었다. 송으로부터의 유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前燕의 和約조건인 歲幣絹 20만필-홍종 11년 이후에는 30만필로 증액-이었다. 세폐전으로도 부족한 양은 송으로부터 수입해서 충당해야 했다. 견직물의 특성상 영구적인 축적이 가능한 은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만큼 요의 견직물 수요는 늘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고려로부터 견직물을 수입하는 것에도 중요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契丹國志』에 紫花錦紬와 白綿紬의 품목을 규정해 두었다는 사실⁴⁷⁾에서도 알 수가 있다.⁴⁸⁾

고려와 東女眞의 絹馬貿易, 고려와 遼의 무역품에 보이는 絹 등을 통해 볼 때, 각각 고려와 여진·요의 바로 전시기에 있었던 신라와 발해도 활발한 경제교섭을 했을 것임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⁹⁾

남북 경제교섭을 견직물의 교류를 통해 살펴보았다. 신라와 발해간의 경제교섭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사료는 없다. 하지만 고려와 遼간의 무역, 고려와 여진간의 絹馬貿易을 통해 볼 때, 遼와 고려의 앞선 시기에 있었던 신라와 발해도 경제교섭을 했을 것임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발해의 생산구조를 고려할 때, 당·일본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경제교섭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Ⅲ.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와 정부정책

唐代 무역관리제도의 특징 가운데 먼저 주목되는 것은, 대외무역은 황제의 전권사행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漢代 이래의 계보를 잇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漢·魏·南北朝를 거치는 약 800년간의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隋·唐시기에 이르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唐律의 제정시행과 더불어 대외무역 및 항해와 관련된 문서들이 제 격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互市監의 대외무역에의 관여를 계기로 중앙정부의 대외무역과 항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더 중요한 변화는 漢代의 候官 이후, 새로운 항해 및 무역관리기구인 市舶使가 설치되면서 중국 고대 무역관리제도상 새로운 市舶使시대가 개막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대 무역관리제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수출품규제⁵⁰⁾였다.

당만이 가질 수 있었던 뛰어난 문물은 당연히 여러 외국이 열망한 것이었다. 그러한 탐낼만한 물품을 여러 나라가 유일하게 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공이었다. 당대의 수출품규제는 회사품의 가치를 극도로 높여 많은 나라를 조공에 불러들이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沿邊互市보다 公使(사실상 당에서는 거의 朝貢使로 간주됨)로서 入朝하여 교역하는 편이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 등도 고려한다면 당대 율령제 하의 무역관리제도

46) 李在成, 1996, 『古代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139쪽.

47) 『契丹國志』卷21, 外國貢進禮物 新羅國貢進物件.

48) 이정희, 2000, 「고려전기 對遼무역의 성격」 『고려시대 세계의 연구』, 國學資料院, 306~307쪽.

49) 尹載云, 2002, 「신라와 발해의 경제교섭」 『史叢』 55, 歷史學硏究會.

50) 당대의 수출품규제는 官市令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令의 규정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변경·추가가 勅으로 시행되어 수출금제품도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예컨대 開元 2年 閏3月の 勅(『唐會要』 86, 市), 貞元 3년 12월의 禁令(『冊府元龜』 999, 外臣部 互市), 建中 원년 10월 6일의 勅(『冊府元龜』 999, 外臣部 互市) 또 勅 등의 법령의 형식으로는 남아 있지 않으나, 최신·선진의 서적 등에 대한 수출규제가 있었던 일도 알려져 있다.

는 조공관계의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의 조공을 통한 무역관리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은 사무역을 용인하면서부터이다. 사무역 발전의 단서는 開元年間(713~741)의 초두에서 확인된다. 그 예로 市舶使의 설치⁵¹⁾와 西域에서의 征稅⁵²⁾를 들 수 있다. 어느 쪽이건 대외무역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한하고 있었던 사무역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려고 하는 당의 새로운 방침을 알 수 있다. 개원연간 이후 당의 대외무역 특히 남해무역이 점차 성행하였던 것은 이러한 무역정책의 전환에 의한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될 것이다. 또 당연한 것이지만 이 시기의 당 국내의 사회·경제상황도 대외무역의 융성에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당에서의 南海貿易의 영향은 주변 여러 나라의 무역관계에도 반영되었던 것은 이미 8세기 중반에 신라가 당에서 구한 南海産 香藥을 일본에 가지고 온 것⁵³⁾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당 왕조가 멸망하고 책봉체제가 붕괴한 뒤에 동아시아 교역권이 탄생하였다고 하는 의견⁵⁴⁾도 있지만 9세기에는 이미 교역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의 태동은 8세기 전반 盛唐期에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⁵⁵⁾

이렇게 당의 사무역 용인이라는 방침 변경의 주요한 원인은 재정핍박에 의한 새로운 재원의 확보 때문이었다. 7세기말에는 율령제적인 均田·租庸調제도는 잘 행해지지 않고 전통적인 중농주의적 세금징수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시박사가 징수한 船脚과 西域商戶에 대한 征稅는, 8세기 후반 연이어 신설된 鹽稅·商稅 등의 상업과세의 선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고종조 즈음부터 현저한 관리의 증가, 지배영역 확대에 의한 군사비의 증대도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당에서의 사무역 발전에 역동적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 755년 11월에 일어난 安史의 亂이었다. 당은 8세기중엽 安史의 亂(755~763)을 겪으면서 지방의 통제가 해이해졌고, 그 결과 각지에서 번진세력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고구려계 유민 출신인 李正己·李汭·李師古·李師道로 이어지는 李氏 一家의 세력이다. 그들은 신라와 해상교통이 편리한 산동반도 전역을 장악하여, 3代 55年間(765~819)이나 治外法權적인 번진세력으로 唐内の 小王國으로 군림하였다.⁵⁶⁾

平盧淄青藩鎮이 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職名은 ‘平盧淄青節度觀察使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인데, 이 職名은 羈靡政策으로서 주변 제민족을 통치하던 당이 변방의 국가 통치에 대한 업무를 부여할 때 除授하는 職名이다. 즉 이 직책은 ‘신라와 발해의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그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할하는 장관’이라는 의미이다.⁵⁷⁾

원래 이 직함은 ‘海運’과 ‘押新羅渤海兩蕃使’라는 두 직책을 합친 복합적인 직함이다. 그 중 앞의 ‘海運使’라는 직함은 해상을 통하여 남방지역에서 생산된 양곡을 북방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의 군량미로 운반함에 있어 해상항로를 통한 운반책임을 지는 것이며, 원래는 安祿山에게 주어졌던 직함이다.

‘押新羅北海兩蕃使’는 765년에 이정기가 후퇴일을 몰아내고 平盧淄青節度觀察使가 되었을 때, 부여된 직함이다.⁵⁸⁾ 그러다가 10년후인 775년에는 이 직함이 ‘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로 바뀐다.⁵⁹⁾ 다시 9년 후인 784년에

51) 和田久徳, 1960, 「唐代における市舶使の創置」『和田博士古稀紀念東洋史論叢』.

52) 伊瀬仙太郎, 1955, 「西域賈に對する征稅」『中國西域經營史研究』.

53) 東野治之, 1992, 『遣唐使と正倉院』, 岩波書店.

54)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55) 榎本淳一, 1992, 「國風文化と中國文化—文化移入における朝貢と貿易」『古代を考える唐と日本』, 吉川弘文館; 2002, 『張保臯關聯研究論文選集』—中國·日本編—,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655쪽.

56) 金文經, 1975, 「唐代 藩鎮의 한 研究-高句麗遺民 李正己一家를 中心으로-」『省谷論叢』6; 1984, 『唐代的 社會와 宗教』, 崇田大學校 出版部.

57) 사회과학연구소편, 1979, 『조선전사』5-발해 및 후기신라사-, 48쪽.

58) 『新唐書』65, 方鎮表5, 永泰元年條.

59) 『舊唐書』124, 列傳74, 李正己.

는 ‘海運陸運押新羅渤海兩蕃使’가 된다. 앞의 775년의 직함에 해운을 추가한 것은 군량미의 해상운송을 책임 지도록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후 ‘陸運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로 바뀌어 兩蕃과 使 사이에 ‘等’자를 추가한 것은 신라와 발해뿐만 아니라 일본 등 기타지역과의 교역도 그 관할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9년 후에 ‘陸’자를 추가한 것은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육상운송에 관한 책임도 平盧淄青節度使에게 맡겼던 것이다. 따라서 이정기의 평로치청절도사는 해상무역 뿐만 아니라 육상운송과 연안운송 등 중국의 동북지방의 교통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 조정하는 막강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⁶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唐末의 대외무역을 관리하던 것은 市舶使⁶¹⁾였다. 시박사는 대외무역선의 입출항 및 교역의 관리와 세금의 징수, 그리고 궁중에서 사용하는 각종 사치품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였다. 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도 시박사와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시박사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기구로 해석하고 있다.

시박사가 순수한 무역관리기구인 반면에 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는 당의 對渤海, 對新羅 외교의 일선창구라는 정치, 외교적인 기능이 더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기구가 왜 존재하였을까? 이러한 차이는 시박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廣州 등 남방지역과 押新羅渤海兩蕃使가 위치하였던 중국의 동북지방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광주 등 중국 남부의 海港을 이용하는 서역과 동남아제국들은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그들이 먼 바다를 건너와서 다시 대륙 깊숙이 까지 쳐들어와서 당나라 정권을 위협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당나라 남부 항구를 이용하는 무역선들을 대하는 당 조정의 태도도 경제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당의 동북지방의 경우, 당나라와 건국 초기의 당나라가 고구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신라와 연합하여 한반도를 통일하여 겨우 동북지방의 근심거리를 제거하였다고 생각한지 얼마 안되어 다시 발해가 나타나서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발해의 존재는 신라에게도 경계의 대상이었다. 중국 동북지방은 당과 신라, 그리고 발해와 일본이라는 네 세력간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押新羅渤海兩蕃使는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미묘한 정세 속에서 다변화된 외교를 하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선기관⁶²⁾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唐은 8세기 초를 경계로 조공을 중심으로 한 공무역정책에서, 사무역을 용인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안사의 난을 계기로 절도사 같은 지방관리, 市舶使 등에서 무역을 관리하는 등,

60) 허일·최재수·강상택·이창익外 共著, 2001, 『張保皐와 황해해상무역』, 국학자료원, 170~172쪽.
61) 唐代에 설치된 市舶使는 다음과 같다.(黎虎, 2002, 「唐代市舶使與市舶管理」 『東國史學』 37, 562쪽의 表).

연도	성명	직책	장소	신분	출전
開元 2년(714)	周慶立	市舶使	安南	朝官	『舊唐書』 卷8, 玄宗紀
開元 10년(722)	韋某	市舶使	廣州	宦官	『全唐文』 卷371, 于肅 『內給事諫議大夫韋公神道碑』
天寶初(742~755)	無	中人之市舶者	廣州	宦官	『新唐書』 卷126, 盧奐傳
廣德 元年(763)	呂太一	市舶使	廣州	宦官	『舊唐書』 卷11, 代宗紀
德宗初(779~804)	王虔休	市舶使	廣州	朝官	『全唐文』 卷515, 王虔休 『進嶺南王館市舶使院圖表』
開成 원년(836)	無	市舶使	廣州	宦官(監軍)	『舊唐書』 卷177, 盧鈞傳
大中 4년(850)	李敬實	市舶使	廣州	宦官(都監)	『考古與文物』 1985년 6期, 關雙喜, 『西安東郊出土唐李敬實墓誌』

62) 허일·최재수·강상택·이창익外 共著, 2001, 위의 책, 174~175쪽.

전반적으로 무역의 담당층이 늘어가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러한 당의 무역정책 전환이 신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다. 신라와 당은 일시적인 전쟁상태에 있었으나 703년부터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어 성덕왕대(702~736)에는 총 46회의 조공사가 파견되었다. 이러한 조공사의 파견은 왕권의 신장과 관련을 가짐과 동시에 對唐 조공의 성격도 문화적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된다. 즉 조공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은 주변국가가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입하여, 왕족과 귀족들의 정치적 지위의 보장과 그들의 경제적 이익의 독점에 있다. 朝貢과 下賜의 형식을 통해 물자 교역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⁶³⁾

기존에는 사무역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점을 8세기 중반 이나 9세기 전반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다음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4. 夏 5월에 靈巖郡 太守인 一吉滄 諸逸이 公益을 배반하고 私益을 영위하여 杖刑 100에 처하고 섬으로 보냈다.⁶⁴⁾

5-5. 禺金里에 사는 가난한 여자 寶開에게 長春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바다의 장사꾼을 따라나가더니 오래 되어도 소식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敏藏寺 觀音菩薩 앞에 가서 7일 동안 기도했다. 長春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 동안의 연유를 물으니 長春이 대답했다. “바다 가운데서 회오리바람을 만나 배는 부서지고 동료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저는 널판 쪽을 타고 뽕나라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뽕나라 사람이 저를 데려다가 들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어느날 이상한 스님 하나가 마치 고향에서 온 것처럼 은근히 위로하더니 저를 데리고 같이 가는데, 앞에 깊은 도랑이 있어 스님은 저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도랑을 뛰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우리 집 말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저녁때에 뽕나라를 떠났는데, 이곳에 도착한 것이 겨우 戊時였다. 이때는 바로 天寶 4년 乙酉(745) 4월 8일이었다.⁶⁵⁾

사료 5-4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신라관인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료로서 주목되었다. 즉 신라에서는 관인에 대해 杖刑과 流配刑이 竝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隋唐의 律이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특징 중의 하나는 유형의 里數가 단축되었다는 점, 또 유형에 鞭笞刑(杖刑)이 竝科되던 기존의 형벌체계가 폐지되었다는 점인데, 아직도 신라에서는 장형과 유형이 병과되는 형벌체계가 남아있어 주목된다는 것이다.⁶⁶⁾

하지만 효소왕대(692~702)의 끝부분인 8세기 초반부터 사무역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一吉滄 諸逸이 영위한 私益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靈巖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성격을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즉 백제시대에 王仁이라는 인물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이 지역의 문화배경이나 성격이 백제의 중심세력 문화와는 자못 다른 바가 많고, 왕인의 渡日시기와 백제의 마한세력 복속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또 왕인의 고향인 영암이 최후의 복속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영암지역은 삼국시대부터 대중국항로의 중요 기점 가운데 하나였다. 한편 남북국시대에도 영암 관내의 月出山에서 신라의 國祭인 小祀(月

63) 李賢惠, 1998, 앞의 책, 266쪽.

64) 『三國史記』 8, 孝昭王 10年.

65) 『三國遺事』 3, 塔像4, 敏藏寺條.

66) 尹善泰, 2003, 「新羅 中代の 刑律—中國律令 受容の 新羅の 特質과 관련하여—」 『강좌 한국고대사』 3—고대국가의 구조와 사회(2)—, 제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21쪽.

奈岳祭)가 지내졌음을 통해 볼 때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⁶⁷⁾ 따라서 영암군태수 一吉滄 諸逸이 영위한 私益은 상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사료 5-5에 나오는 長春은 왕경인으로 해상무역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항해 도중에 조난하여 양자강 하류 지방에 표착했다는 것은, 장춘이 속한 商團이 대중국 해상무역에 종사했음을 시사해 준다. 장춘은 왕경에 거주하는 평민출신으로서 귀족이 조직한 商團에 참여했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민간 상업세력이 독자적으로 대외교역에 진출하게 되었고, 경덕왕이 이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민장사에 보시를 한 것은 귀족 주도의 대외교역이 적어도 국가의 묵인하에 이뤄지던 사정을 보여준다.⁶⁸⁾

이상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8세기 초반에 민간해상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할 정도로 무역이 발달했다는 점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의 무역정책이 사무역 용인으로 전환한 시점이 開元年間(713~741)초였다. 그런데 신라의 경우에는 효소왕 10년(701)에는 私益을 추구한 영암군태수 一吉滄 諸逸을 처벌하고 있는 데 반해서, 경덕왕대에는 평민인 長春도 아무런 제약 없이 해상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라정부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적어도 신라는 성덕왕대부터는 사무역 용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고 생각된다.

당의 무역정책 전환이라는 외적인 계기 외에 무역발전의 내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신라의 산업발전이다. 특히 신라의 가장 전성기라고 하는 성덕왕대부터 대당관계의 진전에 의해 신라의 진골귀족들은 자기의 공방에서 많은 대외교역품을 생산했다고 보여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752년에 김태렴 일행이 일본에 가져간 물건을 들 수 있다. 이 물건은 신라 사절단과 함께 來日했다고 추측되는 다수의 교역담당자가 각 공방의 귀족으로부터 위탁판매를 받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당과의 교역을 통하여 얻은 물품을 신라가 일본에 파는 중계무역을 행했다고 볼 수도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8세기 이전에 신라에서 일본에 가져간 물품은 금, 은, 동, 인삼 등의 원료품 중심이었으나, 8세기 중엽부터는 금은세공품, 모직물, 견직물 등 정교한 공예품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⁶⁹⁾

사무역은 9세기에 들어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8세기 단계와의 차이점은 무역 담당자 층의 확대를 들 수 있다. 8세기 단계까지 무역의 주체는 주로 왕이나 귀족 등이었다. 하지만 9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평민들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814년(헌덕왕 6)부터 9세기 전반에 신라 상인들이 일본에 10여 차례 내항한 기록이나,⁷⁰⁾ 「興德王陵碑片」에 보이는 ‘貿易之人’⁷¹⁾은 민간상인이 뚜렷한 사회계층으로 등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5-6. 漢山州 瓢川縣에 妖人이 있어, 빨리 부유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므로 못 사람들이 자못 이에 미혹되었다. 왕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左道로써 무리를 미혹케 하는 자를 처형하는 것은 선왕의 법이다”라고 하여 그를 외딴 섬으로 내쳤다.⁷²⁾

5-7. 왕위에 오른 지 9(834)년째인 太和 8년에 교지를 내려 말하기를, “사람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구별이 있고, 지위에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어 이름의 차례가 같지 않으며, 의복도

67) 李海濱, 1986, 『靈岩郡의 沿革』 『靈岩郡의 文化遺蹟』, 국립목포대학박물관·전라남도 영암군, 19~21쪽.

68) 김창석, 2001, 「장보고 집단의 교역활동과 靑磁」 『STRATEGY21』 8, 125~126쪽.

69) 이병로, 1996, 「8세기의 羅·日관계사-中華사상과 교역을 중심으로-」 『日本學年報』 4, 247~249쪽.

70) 李成市, 1997, 『東아시아의 王權と交易』, 青木書店.

71) △思之不△△ △貿易之人△ 規諫及乎(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韓國古代金石文』 I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72) 三年 夏四月 漢山州瓢川縣妖人 自言有速富之術 衆人頗惑之 王聞之曰 執左道以惑衆者 刑之 先王之法也 投畀其人遠島(『三國史記』 10, 興德王 3年).

또한 다른 것이다. 그런데 풍속이 점차 경박해져서 백성들은 사치와 호화를 다투며, 오직 외래 물건의 진기함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세련되지 못함을 싫어한다. (이에) 신분에 따른 禮的 차이가 거의 무시되는 지경에 빠지고 풍속은 허물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감히 옛 법에 따라 밝은 명령을 펴는 바이니, 혹시 일부러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⁷³⁾

사료 5-6에서는 왕경이 아닌 한산주에서 富의 축적방법이 유포되고 주민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목된다. 지방에서도 경제적 부에 대한 선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은, 직접 생산자층의 몰락과 함께 당시 지방에서 상업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 창출되고 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⁷⁴⁾ 한편 이 사료에서도 신라정부의 사무역 용인정책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신라정부는 현실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사무역행위에 대해서는 묵인 또는 용인을 하고 있었으나, 이처럼 공공연히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였던 것이다.⁷⁵⁾

사료 5-7은 834년 흥덕왕이 반포한 사치 제한령이다. 이 규정은 屋舍·色服·車騎·器用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제한령이다. 이는 당시 진골귀족 이하 귀족층 사이에 만연되고 있던 사치풍조를 규제하려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 제한령에 보이는 외래상품 가운데는 그 원산지가 타슈켄트 지방 아랄해 동안인 瑟瑟을 비롯하여 羊毛를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페르시아의 坐具用 모직물인 毳毼·毯氈, 캄보디아산 翡翠毛, 보르네오·자바산 玳瑁, 자바·수마트라산 紫檀, 수마트라가 주산지인 沈香 등이 보인다. 이러한 사치품은 장보고의 무역선단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⁷⁶⁾

사료 5-6, 5-7 외에 9세기대의 신라 무역정책을 엿볼 수 있는 것이 軍鎮이다. 신라 하대에 설치하였거나 또는 이전에 설치하였으나 하대까지 존속한 軍鎮으로서 北鎮, 溟江鎮, 淸海鎮, 唐城鎮, 穴口鎮, 長口鎮, 施彌知鎮과 더불어 沙火鎮, 阿弗鎮, 昵於鎮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沙火鎮, 阿弗鎮, 昵於鎮은 후삼국시기에 신라가 王京을 특별히 鎮護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北鎮과 溟江鎮은 모두 북방 변경지역에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민족의 침략을 방어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北鎮은 무열왕 5년(658)에 悉直(삼척)에 처음 설치되었다. 그러나 설치 직후의 북진이 가진 군사적 위상은 州治인 何瑟羅보다 낮았으며, 州治의 배후에서 말갈의 침입에 대비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진은 경덕왕 16년 이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실직에서부터 泉井郡(덕원)으로 移置되었다. 이렇게 옮겨진 북진은 성덕왕 20년(721)에 축조되었던 北境長城과 경덕왕 16년 경에 설치된 炭項關門을 수비하는 임무를 가진 동북변경 방어의 최일선 기지로 되었다. 북진은 사료를 통해서도 헌강왕 12년(886) 당시까지 그 존

73) 興德王即位九年 太和八年 下教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薄 民競奢華 只尚異物之珍寄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通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固有常刑(『三國史記』 33, 雜誌2, 色服條).

74) 한편 한산주의 妖人이 설파한 ‘速富之術’에 대해서는 농민층 빈곤에 따른 사회적 불안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예언, 미신으로 보기도 하고(李基東, 1997,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53쪽), 귀신·卜筮에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趙仁成, 1996, 『彌勒信仰과 新羅社會』 『震檀學報』 82, 38~39쪽).

75) 사이버네틱스·시스템이론에 의하면 봉건대국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관료기구가 형성되어 관료의 유동성도 또한 크다. 이러한 관료정치는 각 지역을 아우르는 상업유통 활동을 매우 필요로 한다. 동시에 상품경제는 자급자족의 소농경제를 파괴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여, 일정정도 귀족화경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경제가 지나치게 발달하면 지주경제 구조를 위태롭게 하고 봉건경제의 쇠퇴를 초래한다. 그래서 봉건대국의 경제구조 전체는, 상업이 비교적 발달하지만 봉건적 생산관계를 파괴하는 데는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경직된 평형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평형점에서 지나치게 괴리되면 이 때도 마찬가지로 봉건대국은 해체된다고 한다(金觀濤 著·河世鳳 譯, 1997, 『中國史의 시스템理論의 分析』, 신서원, 53쪽). 신라의 경우에도 국가운영의 필요성 면에서 상업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봉건 생산관계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업의 발달을 조절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76) 李基東, 1985, 『張保阜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阜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97,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재가 확인되고 있으므로,⁷⁷⁾ 경덕왕대 이후 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동북변경방어의 중핵적 기능을 수행했을 수 있을 것이다.⁷⁸⁾ 한편 溟江鎮은 782년(선덕왕 3) 大谷(황해도 평산)에 설치한 軍鎮인데, 이것은 8세기 중반에 새로 개척한 폐간지역을 북방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⁷⁹⁾

이외에 신라 하대에 설치한 군진으로는 淸海鎮(흥덕왕 3년, 828), 唐城鎮(흥덕왕 4년, 829), 穴口鎮(문성왕 6년, 844), 長口鎮을 들 수 있다. 청해진은 전남 완도에, 당성진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에, 혈구진은 강화도에, 장구진은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 근처에 위치하였다. 이처럼 해상교통의 요지에 대규모의 군대가 주둔하는 진영을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신라는 일차적으로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해안지역에 진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해진 설치 이후에 설치된 鎮들은 청해진의 성공, 활발한 대외무역을 위한 안전한 항로 확보, 부족한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설치되었다.⁸⁰⁾

결국 신라는 景德王代(742~765) 이전부터 사무역 용인으로 무역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소왕 10년(701)의 一吉滄 諸逸 처벌, 흥덕왕 3년(828)의 한산주 妖人 처벌, 흥덕왕 9년(834)의 사치 제한령 반포 등을 볼 때, 국가운영의 필요성 면에서 상업·무역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업·무역의 발달을 조절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1장에서는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의 형성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朝貢을 매개로 형성된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시장과 각 지역에 형성된 지역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사와 관련된 지역시장은, 중국중심의 광역시장 아래 ‘黃海貿易圈’·‘西部日本貿易圈’·‘東海貿易圈’ 등이었다.

2장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의 내용을 네 분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우선 네트워크의 성립기(618-754년)에서는 네트워크 형성의 배경을 국내, 국제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외적인 계기로는 唐의 건국을 들 수 있다. 내적인 계기로는 신라의 경우는 王京에 시전의 증설과, 지방제도의 정비에 의한 거점도시의 시전설치, 대중국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서남해도서지방의 장악, 公貿易과 私貿易의 각각의 주체들에 의한 무역품의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발해는 건국기(高王~武王)의 걸끄러웠던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각종 정치제도의 정비·말갈부족정복 등을 이루고, 新羅道の 개통, 대일무역과 대중국무역의 활성화를 이룬 文王 전기가 貿易網이 성립한 시기로 판단된다.

발해의 무역 융성기(755-827년)는 공무역의 가늠자인 遣唐使의 파견횟수나 산동반도지역과의 絹馬貿易, 발해상인들의 활약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이러한 대중국무역에서 발해의 신라에 대한 우위는 이르면 淄靑藩

77) 『三國史記』 11 憲康王 12年條.

78)李文基, 1994, 「統一新羅期の ‘北鎮’과 軍事的 位相」 『九谷 黃鍾東教授 停年紀念 史學論叢』.

79) 폐간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들이 참조된다. 藤田亮策, 1953, 「新羅九州五京攷」 『朝鮮學報』 5; 李元白, 1958, 「高麗 太祖時의 鎮」 『歷史學報』 10(1968,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에 재수록); 末松保和, 1975, 「新羅의 郡縣制」 『學習院大學文學部研究年報』 21(1995, 『新羅의 政治と社會』 下에 재수록); 木村誠, 1979, 「統一新羅의 郡縣制と 溟江鎮經營」 『朝鮮歷史論集』 上; 方東仁, 1979, 「溟江鎮의 管轄範圍에 關하여」 『靑坡盧道陽博士古稀紀念論文集』 (1997,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一潮閣에 재수록); 李基東, 1976, 「新羅 下代의 溟江鎮」 『韓國學報』 5(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에 재수록); 李成市, 1981, 「新羅兵制における 溟江鎮典」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別冊7(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에 재수록); 裴중도, 1989, 「新羅 下代의 地方制度 改編에 對한 考察」 『學林』 11; 李仁哲, 1993, 「新羅統一期の 地方統治體系」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姜鳳龍, 1997, 「新羅 下代 溟江鎮의 設置와 運營-州郡縣體制的 擴大와 關하여」 『韓國古代史研究』 11; 全德在, 1997, 「新羅 下代 鎮의 設置와 性格」 『軍史』 35; 尹載云, 1999b, 앞의 논문.

80) 尹載云, 1999b, 앞의 논문.

鎭의 소멸시기인 819년, 늦어도 淸海鎭이 설치되는 828년까지는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무역 융성기(828-851년)에는 청해진의 설치를 계기로 신라가 무역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청해진 혁파후인 9세기 후반 교역질서의 혼란·경쟁기(852-926년)에는 신라국내 해상세력의 대두, 대일무역의 양상 변화 등 전반적으로 경쟁이나 혼란에 접어드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다.

3장에서는 네트워크에 미치는 국가정책에 대해 신라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았다. 신라는 景德王代(742~765) 이전부터 사무역 용인으로 무역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소왕 10년(701)의 一吉滄諸逸 처벌, 흥덕왕 3년(828)의 한산주 妖人 처벌, 흥덕왕 9년(834)의 사치 제한령 반포 등을 볼 때, 국가운영의 필요성 면에서 상업·무역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업·무역의 발달을 조절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남북국시대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항해 사례(종합)

시 기	항 해 자	출발지	도착지	목 적	내 용
668.9	金東嚴	신라	일본		김유신에 船 1척, 신라왕에 船, 絹, 綿, 章 사여
668.9	小山下 道守臣麻呂	일본	신라		金羅使 金東嚴과 동행
669		일본	唐		
669.9	督儒	신라	일본		
670.9	阿曇連類垂	일본	신라		
671.6		신라	일본		別獻 水牛, 山鷄
671.10	金萬物	신라	일본		신라왕에 絹, 綿, 綿, 章 선사
672.11	金押實	신라	일본		筑紫에서 연회, 신라사절단에게 船 1척 사여
673.閏6	金承元	신라	일본		賀登極使, 中客 이상 27인 入京
675.2	金忠元	신라	일본		送使 奈末金風那 筑紫귀국, 級浪 金比蘇 등 4인 동행, 難波에서 귀국
675.3	朴勤修	신라	일본		大奈末 金美賀 동행
675.7	小錦上 大伴連國麻呂	일본	신라		
676.10	大乙上 物部連麻呂	일본	신라		
676.11	金淸平	신라	일본		김청평 이하 13인 入京, 送使 奈末被珍那 筑紫에서 귀국, 표류민 동행
676.11	金楊原	신라	일본		고구려 使人 筑紫에 送使
678	金消勿	신라	일본		送使 加良井山이 新羅使의 海中조난을 알림. 消勿 등 不來
679.10	金項那	신라	일본		筑紫에서 연회. 調物 10여종. 別獻物
680.5	考那	신라	일본		高句麗使人을 筑紫에 送使
680.11	金若弼	신라	일본		習言者 3인 동행. 筑紫에서 연회, 賜祿物
681.7	小錦下 采女臣竹羅	일본	신라		
681.10	金忠平	신라	일본		調物. 金銀銅鐵, 錦絹, 鹿皮, 細布之類各有數. 別獻. 天皇, 皇后太子金銀, 錦, 霞幡, 皮之類, 各有數. 文武王 告喪. 筑紫에서 연회
682.6	金釋起	신라	일본		高句麗使人 送使
683.11	金主山	신라	일본		
684.4	小錦下 高向臣麻呂	일본	신라		學文僧 觀常·雲觀 귀국, 신라왕 賜物, 馬·犬·鸚鵡·鵲及種種寶物
684.12	金物儒	신라	일본		大唐學生 土師宿禰甥 등을 送使

시 기	항 해 자	출발지	도착지	목 적	내 용
685.11	金智祥	신라	일본		請政, 進調. 細馬一疋, 騾一頭, 犬二狗, 鍍金器及金銀, 霞錦, 綾羅, 虎豹皮及藥物之類并百餘種. 別獻物, 金銀, 霞錦, 綾羅, 金器, 屏風, 鞍皮, 絹布, 藥物之類, 各六十餘種. 所獻皇后, 皇太子, 及諸親王等之物 各有數 筑紫에서 연회, 연회를 위해 川原寺의 伎樂을 筑紫로 옮김, 祿物 사여
686.2		신라	唐		禮記·문장요청, 圓測 방환요청
687.1	直廣肆 田中朝臣法麻呂	일본	신라		天武天皇의 告喪使
687.9	金霜林	신라	일본		奏請國政, 獻調賦, 金銀, 絹布, 皮銅鐵之類十餘物, 別所獻佛像, 種種彩絹, 烏馬之類十餘種. 所獻金銀, 彩色, 種種珍異之物, 八十餘物. 筑紫에서 연회, 級浪 金薩學·金仁述 및 大舍 蘇陽信 동행
689.4	金道那	신라	일본		天武天皇 弔問使, 學問僧 明聰, 觀智等 送使. 別獻金銅阿彌陀像, 金銅觀世音菩薩像, 大勢至菩薩像, 彩帛錦綾. 筑紫에서 연회, 新羅 學問僧 明聰, 觀智의 師友에게 보낼 錦 사여, 사신에게 賜物
690.9	金高訓	신라	일본		大唐學問僧 智宗·義德·淨願·大伴部博麻 등을 送使. 筑紫에서 연회, 사신에 賞賜
692.11	朴億德	신라	일본		難波館에서 연회, 新羅調 5社에 헌납, 표류민 37명 송환
693.2	金江南	신라	일본		신라왕에 絹, 絁, 綿, 章 선사
693.3	直廣肆 息長真人老	일본	신라		신라왕에게 선물, 學問僧 弁通·神叡 동행
695.3	金良林	신라	일본		奏請國政, 進調獻物. 薩浪 朴強國, 韓奈麻 金周漢·金忠仙 동행
695.9	直廣肆 小野朝臣毛野	일본	신라		
697.10	金弼德	신라	일본		貢調物. 新羅使 大極殿新年賀禮, 新羅 公물 神社·天武陵에 헌납
699.2		신라	唐		
700.5	直廣肆 佐伯宿禰麻呂	일본	신라		신라에서 孔雀·珍物 하사
700.11	金所毛	신라	일본		孝昭王母의 告喪使, 金所毛 사망, 絁·綿·布 사여, 新羅使 水夫 이상 賜祿
702.6		일본	唐		
703.1	金福護	신라	일본		孝昭王의 告喪使, 難波館에서 연회, 표류 신라인 동행
703.1		신라	唐		
703	金思讓	신라	唐		
703.10	從5位下 波多朝臣廣足	일본	신라		신라왕에게 綿·絁 선물
705.3	金志誠	신라	唐		
705.9		신라	唐		
705.10	金儒吉	신라	일본		新羅使 大極殿 新年賀禮, 朝堂 연회, 新羅調 伊勢 및 7道諸社에 헌납
706.4		신라	唐		
706.8		신라	唐		
706.10		신라	唐		
706.11	從5位下 美努連淨麻呂	일본	신라		學問僧 義法, 義基, 惣集, 慈定, 淨達 귀국
707.12		신라	唐		
709.3		신라	일본		貢方物, 朝堂에서 연회, 賜祿, 신라왕에게 絁射·綿 사여
709.6		신라	唐		
710.1		신라	唐		

시 기	항 해 자	출발지	도착지	목 적	내 용
711.12		신라	唐		
712.2		신라	唐		
712.10	從5位下 道君守名	일본	신라		
712.12		신라	唐		
713.2		신라	唐테		
713.6		신라	唐		
714.2	朴裕, 金守忠	신라	唐	賀正, 宿衛	朝堂 연회, 朴裕 朝散大夫 員外奉御 受爵, 김수충은 716년 9월 귀국
714.10		신라	唐		內殿 연회, 宰臣 및 4품 이상 淸官 참석
714.11	金元靜	신라	일본		入京, 中門에서 연회, 賜綿
714		발해	唐		唐使 崔忻·學生 동행
716.3	金楓厚	신라	唐	賀正	員外郎 受爵
717.3		일본	唐		
717.5		신라	唐		
718.2		신라	唐		守中郎將 受爵
718.5	正5位下 小野朝臣馬養	일본	신라		
719.1		신라	唐	賀正	帛 50필 受領
719.5		신라	唐		도중 卒, 太僕卿 追贈, 絹 100필 賻物
719.5	金長言	신라	일본		獻貢物, 騾馬·牧牝 各1필. 신라왕과 長言에게 賜祿
719.8	從6位上 白猪史廣成	일본	신라		
721.1	靺鞨大首領	발해	唐		折衝 受爵
721.12	金乾安	신라	일본		元明天皇 사망으로 筑紫에서 망환
722.5	正6位下 津史主治麻呂	일본	신라		
722.10	金仁壹	신라	唐	賀正	
722.11	大臣 味教計	발해	唐		鷹餼상, 大將軍 受爵, 錦袍金魚袋 受領
723.4		신라	唐		果下馬·人蔘·牛黃·表文 헌상
723.8	金貞宿외 15인	신라	일본		朝堂에서 연회
724.2	金武勳	신라	唐	賀正	遊擊將軍 受爵, 帛 50匹 수령
724.2	賀作慶	발해	唐	賀正	
724.8	從5位上 土師宿禰豐麻呂	일본	신라		
724.12		신라	唐		抱貞·貞苑 헌상
725		신라	唐		封禪儀式 慶賀
725.1	大首領 烏借芝蒙	발해	唐	賀正	
725.4	首領 謁德	발해	唐		果毅 受爵
725.5	王弟 大昌教價	발해	唐		左威衛員外將軍·襄平縣開國男 受爵, 紫袍金帶魚袋, 帛50필, 무왕의 綵練 100필 수령
726.4	從弟 金忠信	신라	唐	賀正, 宿衛	帛 100필 수령
726.4	長子 大都利行	발해	唐		貂鼠皮 헌상, 左武衛大將軍員外置 受爵, 在唐卒, 特進兼鴻臚卿 追贈, 絹 300필·粟300석 賻物, 官造靈輿 本국송환
726.5	王弟 金欽實	신라	唐		郎將 受爵
726.5	薩滄 金造近	신라	일본		入京, 朝堂에서 연회
726.11	王子 大義信	발해	唐		
727.1		신라	唐	賀正	奉御 受爵, 緋袍銀帶魚帶 수령
727.8	王弟 大寶方	발해	唐		

시 기	항 해 자	출발지	도착지	목 적	내 용
727.9	大使 高仁義 외 24명	발해	일본		出羽國 도착
728.2	引田虫麻呂	일본	발해		送使
728.7	從弟 金嗣宗	신라	唐		果毅 受爵
728.9	蔘夫須計	발해	唐		果毅 受爵
729.1		신라	唐	賀正	
729.2	王弟 大胡雅	발해	唐		遊擊將軍 受爵, 紫袍金帶 수령
729.3		발해	唐		帛 20필 수령
729.8	王弟 大琳	발해	唐		中郎將 受爵
729.9		신라	唐		
730.1	王弟 大郎雅	발해	唐	賀正, 宿衛	在唐 嶺南에 유배
730.2	王姪 金志滿	신라	唐		小馬·狗·頭髮 헌상. 太僕卿員外置同正員 受爵, 絹 100필, 紫袍銀帶魚帶 수령
730.2	大首領 知蒙	발해	唐		馬 헌상. 中郎將 受爵, 絹 20필, 緋袍銀帶 수령
730.5	烏那達利	발해	唐		海豹皮·貂鼠皮·瑪瑙杯·馬 헌상. 果毅 수작, 帛 수령
730.10		신라	唐		
731.2	金志良	신라	唐		牛黃·金銀 등 헌상. 太僕小卿員外置 受爵, 詔書·帛 60필 수령
731.2		발해	唐	賀正	장군 受爵, 帛 100필 수령
731.4	馬文軌, 葱勿雅	발해	唐	大門藝 주살 요청	唐에 억류
731.10	大耶珍 등 120인	발해	唐		果毅 受爵, 帛 30필 수령
732.1	金長孫	신라	일본		進種種財物, 并鸚鵡·鳩鴿·獨狗·獵狗·臚·騾. 김장손 등 40인 入京, 朝堂에서 연회
732.1		신라	唐	賀正	
732.2	從5位上 角朝臣家主	일본	신라		
732.9		신라	唐	宿衛	在唐 病死
733.4		일본	唐		4척 가운데 3·4船 조난
733.12	王姪 金志廉	신라	唐	謝恩, 宿衛	表文·馬·牛黃·人蔘 헌상. 內殿연회, 鴻臚小卿員外置 受爵, 束帛 수령, 在唐病死
734.4	大臣 金丹竭丹	신라	唐	賀正	內殿연회, 衛尉小卿 受爵, 緋蘭袍平漫銀帶, 絹 60필 수령
734.12	金相貞	신라	일본		入京後 王城國으로 국호변경 때문에 返却
735.1	金義忠, 金榮, 金義質	신라	唐	賀正	金榮 在唐 卒, 光祿小卿 추증, 涇江鎮 사어, 詔書 수령
735.2	金思蘭	신라	唐	謝恩	太僕卿員外置 受爵, 당에 잔류
735.12	金(忠)相	신라	唐		도중 卒, 衛尉卿 추증
735	大茂慶	발해	唐		
736.3	大蕃	발해	唐	宿衛 교체 요청	太子舍人員外 受爵, 帛 30필 수령, 大郎雅 동행 귀국
736.4	從5位下 阿倍朝臣繼麻呂	일본	신라		
736.6		신라	唐	賀正, 謝恩	
737.1	大首領 木智蒙	발해	唐		
737.2	金抱質	신라	唐	賀正	
737.4	公伯計	발해	唐		將軍 受爵
737.8	大首領 多蒙固	발해	唐		左武衛將軍 受爵, 紫袍金帶·帛 100필 수령
737.12		신라	唐	告哀, 告嗣位	
738.1	金想純 외 147명	신라	일본		大宰府 연회, 放還

시 기	항 해 자	출발지	도착지	목 적	내 용
738.3	金元玄	신라	唐	賀正	
738.6		발해	唐		『唐禮』, 『三國志』, 『晉書』, 『36國春秋』 필사요청
738.閏7		발해	唐		貂鼠皮·乾文魚 헌상
739.2	王弟 大晟進	발해	唐	宿衛	鷹 헌상, 內殿연회, 左武衛大將軍外置同正 受爵, 紫袍金帶·帛 100필 수령
739.7	大使 胥要德, 副使 己珎蒙	발해	일본		出羽國 도착
739.10	受福子	발해	唐	謝恩	果毅 受爵, 紫袍銀帶 수령
740.1	大伴犬養	일본	발해		專使
740.4	外從5位下 紀朝臣必登	일본	신라		
740.10		발해	唐		貂鼠皮·昆布 헌상
741.2	失阿利	발해	唐	賀正	郎將 受爵
741.4		발해	唐		鷹鵠 헌상
742.1		일본	신라		日本國使 신라에서 不納
742.2	金欽英외 187명	신라	일본		新京 미완성으로 放還
742.5		신라	唐		
743.3	金序貞	신라	일본		調를 土毛라고 개칭, 大宰府에서 返却
743.7	大蕃	발해	唐	宿衛	左領軍衛員外大將軍 受爵
744.閏2		신라	唐	賀正	
744.4		신라	唐	謝恩	馬·보물 등 헌상
744.10		신라	唐	賀正	左清道率府員外長史 受爵, 紫袍銀帶 수령
745.4		신라	唐		
746.2		신라	唐	賀正	
746.3		발해	唐	賀正	馬 헌상
747.1		신라	唐	賀正	
747.1		발해	唐	賀正	
748		신라	唐		金銀, 牛黃, 人蔘, 布 등 헌상
749.3		발해	唐		鷹 헌상
750.3		발해	唐		鷹 헌상
752.1	正5位下 山口忌寸人麻呂	일본	신라		
752.閏3	金泰廉외 700인	신라	일본		朝堂에서 연회, 大安寺·東大寺 예불
752.閏3		일본	唐		4척 가운데 1船은 安南에 漂着
752.9	慕施蒙외 75인	발해	일본		越後國 도착
753.1		신라	唐	賀正	
753.2	從5位下 小野朝臣田守	일본	신라		日本國使 신라왕이 不見
753.3		발해	唐	賀正	
754.1		발해	唐	賀正	
755.4		신라	唐	賀正	
757.1		신라	唐	賀正	成都에서 賀正, 당 현종 五言十韻詩 수령
758.2	小野田守	일본	발해		專使
758.8		신라	唐		
758.9	대사 楊承慶, 부사 楊泰師외 23인	발해	일본		越前國 도착
758		발해	唐	唐帝還宮 여부 확인	

시 기	항 해 자	출발지	도착지	목 적	내 용
759.1	高元度	일본	발해		送使
759.2		일본	唐		
759.10	대사 高南申, 부사 高興福	발해	일본		對馬島 漂着
760	楊方慶	발해	唐	賀正	일본인 高元度 등 11인 동행
760.2	陽侯玲璆	일본	발해		送使
760.9	金貞卷	신라	일본		放還
761.2	金嶷	신라	唐	宿衛	
761.10	高麗大山	일본	발해		專使
762.9		신라	唐		
762.10	대사 王新福, 부사 李能本 외 23인	발해	일본		越前國 加賀郡 도착
763.2	金體信외 211인	신라	일본		
763.4		신라	唐		檢校禮部尚書 受爵
763.11	多治比小耳	일본	발해		送使
764	金容	신라	唐	謝恩	唐使 韓朝彩 동행 入唐
764.7	金才伯외 91인	신라	일본		
765.4		신라	唐		檢校禮部尚書 受爵
767.冬	金隱居	신라	唐		
767.7		발해	唐		
767.8		발해	唐		
767.9		발해	唐		
767.11		발해	唐		
767.12		발해	唐		
768.9		신라	唐		
769.1		발해	唐		
769.3		발해	唐		
769.11		신라	唐		
771.6	대사 壹萬福, 부사 慕昌祿 외 325명	발해	일본		常陸國 도착
772.2	武生鳥守	일본	발해		送使
772.5	金標石	신라	唐		1월 신라출발, 衛尉員外小卿 受爵
772.秋		발해	唐		
772.12		발해	唐		
773.4		신라	唐	賀正	金銀·牛黃 등 헌상
773.4		발해	唐	賀正	
773.6		신라	唐	謝恩	
773.6		발해	唐	賀正	
773.6	대사 鳥須弗 외 40인	발해	일본		能登國 도착
773.11		발해	唐		
773.閏11		발해	唐		
773.12		발해	唐		
774.1		발해	唐		2월 延英殿 귀국 인사, 大英俊 동행 귀국
774.4		신라	唐		

시 기	항 해 자	출발지	도착지	목 적	내 용
774.10		신라	唐	賀正	延英殿 引見, 衛尉員外郎 受爵
774.10	金三玄외 235인	신라	일본		大宰府도착. 遣唐大使 藤原河清의 서간을 가지고 음. 貢調를 國信物이라고 함, 放還
774.12		발해	唐		
775.1		신라	唐		
775.1		발해	唐		
775.5		발해	唐		
775.6		신라	唐		
775.6		발해	唐		
775.12		발해	唐		
776.7		신라	唐		
776.10		신라	唐		
776.12	대사 史都蒙외 166인	발해	일본		越前國 加賀郡 도착
777.1		발해	唐		일본 舞女 11인 헌상
777.2		발해	唐		鷹 헌상
777.4		발해	唐		
777.5	高麗殿嗣	일본	발해		送使
777.6		일본	唐		1船 난파
777.12		발해	唐		
777.12		신라	唐		
778.9	張仙壽	발해	일본		越前國 坂井郡 三國湊 도착
778.12	大綱廣道	일본	발해		送使
779.5		일본	唐		
779.9	押領 高洋粥, 通事 高說昌 외 359인	발해	일본		出羽國 도착
779.10	金蘭蓀	신라	일본	賀正	入京, 金嚴·薛仲業·金貞樂·金蘇忠 등 入京
779.12	從6位上 下道朝臣長人	일본	신라	답라에 표류한 견당사를 귀환시키기 위해	
780.10		발해	唐		
782.閏1		신라	唐		
782.5		발해	唐		
784	金讓恭, 道義	신라	唐		
786.4	金元全	신라	唐		唐 칙서, 답례품 수령
786.9	李元泰외 65인	발해	일본		越後國 도착
787.2		일본	발해		送使
789	金俊崐	신라	唐		
790	金彦昇	신라	唐		
791.1	大常靖	발해	唐	賀正	衛尉卿同正 受爵
791.8	王子 大貞翰	발해	唐	宿衛	
792		신라	唐		7월 본국 출발
792.閏12	楊吉福 등 30인	발해	唐		
794.1	王子 大清允 등 30인	발해	唐		右衛將軍同正 受爵, 수행인 30인 官爵 수령
795.11	呂定琳외 68인	발해	일본		越後國에 도착

시 기	항 해 자	출발지	도착지	목 적	내 용
795.12	密阿古 등 30인	발해	唐		中郎將 受爵
796.5	御長廣岳	일본	발해		送使
798.初		발해	唐	康王 官爵 加授요청	
798.4	王姪 大能信	발해	唐	官爵加授 요청	左驍衛中郎將 受爵
798.4	内藏賀茂麻呂	일본	발해		專使
798.12	大昌泰	발해	일본		隱岐國 智夫郡 도착
799		신라	唐	告哀	人蔘헌상
799.4	滋野船白	일본	발해		送使
803		일본	唐		3船 난파
804.11	眞鑑禪師 동행	신라	唐	賀正	
804.11		발해	唐		
805.5		발해	唐		
806.8		신라	唐		
806.12		신라	唐		
806.12		발해	唐		
807.4	楊光信	발해	唐	端午節 경축	
807.12		발해	唐		
808.7	金力奇	신라	唐	謝恩, 故昭 成王 冊封 書 요청	2월 본국출발, 소성왕 冊封書·門戟 수령
809	金陸珍	신라	唐	謝恩	7월 본국출발
809.1		발해	唐		麟德殿 引見
809.10	高南容	발해	일본		
810.1	高才南	발해	唐		
810.9	高南容	발해	일본		
810.10	왕자 金憲章, 僧 冲虚 동행	신라	唐	順宗 명 복 기원	佛像·佛經 헌상, 勅書 수령
810.11	왕자 大延眞	발해	唐		
810.12	林東仁	일본	발해		送使
812.1		발해	唐		麟德殿 引見, 官告 35통, 의복 각 1벌 수령
812.4	金昌南	신라	唐	告哀, 賀正, 請冊封	54명 入京, 門戟 수령
812.12		발해	唐		
813.12	왕자 辛文德 등 97인	발해	唐		연회, 錦綵 수령
814.1	高禮進 등 37인	발해	唐		금은불상 헌상, 麟德殿 연회, 선물 수령
814.9	대사 王孝廉 부사 高景秀	발해	일본		出雲國 도착
814.11		발해	唐		鷹鵠헌상
814.12	大孝眞 등 59인	발해	唐		
815.1		신라	唐		南詔使 共同引見, 연회, 선물 수령
815.1	印貞壽	발해	唐		官告 수령
815.2	大呂慶	발해	唐		2월 22일, 3월 5일 官告 수령

시 기	항 해 자	출발지	도착지	목 적	내 용
815.7	왕자 大庭俊 등 101인	발해	唐		
816	金士信	신라	唐	宿衛	11월 楚州 鹽城縣 漂着
816.2	고속만 등 20인	발해	唐		錦綵, 銀器, 官告 수령
816.11		발해	唐		
817	金張廉	신라	唐	노비 금지 요청	明州 漂着
817.2	大誠愼	발해	唐		錦綵 수령
818		신라	唐		樂工 헌상, 6월 본국출발
818.3	李繼常 등 26인	발해	唐	告哀	官告 수령
818.4	慕感德	발해	일본		
819	唐人 張賞濟, 新羅人 王請 · 李信忠	唐	일본		出羽國 漂着
819.11	대사 李承英	발해	일본		
820.閏1		발해	唐		麟德殿 연회
820.2		신라	唐		麟德殿 연회, 선물 수령
820.11		신라	唐		麟德殿 연회
820.12		발해	唐		麟德殿 연회
821.11	王文矩	발해	일본		
822.1		발해	唐		麟德殿 引見
822.12	金昕, 金柱弼, 無染 禪師 동행	신라	唐	賀正, 宿衛, 本국인 노 비방환요청	金昕 金紫光祿大夫 試太常卿 受爵
823.11	대사 高貞泰 부사 璋璿외 101인	발해	일본		越前國 도착
824.2	大聰叡 등 50인	발해	唐	宿衛요청	
825.3		발해	唐		
825.5	金昕, 金允夫 · 金立之 · 朴亮 · 道允 동행	신라	唐	國學입학 및 放還 요청	
825.11	대사 高承祖 부사 高如岳외 103인	발해	일본		隱岐國 도착
826.1		발해	唐		
826.12		신라	唐		麟德殿 送別宴會, 선물수령
827.4		신라	唐		
827.4	승려 貞素 동행	발해	唐		11인 入京, 麟德殿 연회, 선물 수령
827.12	王文矩외 100인	발해	일본		但馬國 도착
828		신라	唐		2월 본국출발
828.12	金大廉	신라	唐		麟德殿 引見, 선물 수령, 茶종자 지참 귀국
828.12		발해	唐		麟德殿 引見
830.12		신라	唐		
830.12		발해	唐		
831.2	金能儒, 승려 9명 동행	신라	唐		
831.12		신라	唐		
831.12		발해	唐		
832.3	왕자 大明俊	발해	唐		麟德殿 引見, 宴會

시 기	항 해 자	출발지	도착지	목 적	내 용
833.1	同中書右平章事 高寶英, 解楚卿·趙孝明·劉寶俊 동행	발해	唐	謝恩, 학생 입학 및 방환 요청	李居正·朱承朝·高壽海 동행 귀국
833.2	왕자 大先晟	발해	唐		麟德殿 宴會
836.6	왕자 金義琮, 梵日 동행	신라	唐	謝恩 겸 宿衛	정월 본국출발, 玄扈 동행 귀국
836.12		신라	唐	宿衛, 학생 放還 및 치우 요청	金義琮 동행 귀국
836.12		발해	唐		
837.1	왕자 大明俊 외 19인	발해	唐	賀正, 국학 입학 요청	麟德殿 연회
837.7		일본	唐		2船 南海에 漂着 신라선을 타고 귀국
838		발해	唐		麟德殿 引見, 錦綵銀器 수령
839.7		신라	唐	淄青節度使 에 게 노비헌상	體澄 동행 귀국
839.12	왕자 大延廣	발해	唐		唐使 동행 귀국
840.4		신라	唐	告哀, 宿衛학생 방환요청	
841		발해	唐		瑪瑙櫃, 紫瓷盆 헌상
841.12	대사 賀福延 부사 王寶璋외 105인	발해	일본		長門國 도착
842	唐人 李隣德	唐 明州			惠萼 동승
842.8	唐人 李處人	唐	일본		肥前 值嘉島 도착, 惠運 동승
843.12	新羅人 張公靖외 26인	唐 楚州	일본		長門國 도착, 仁好·順昌 동승
846.1	왕자 大之萼	발해	唐		宣政殿 朝會, 麟德殿 引見, 內亨子 연회, 錦綵器皿 수령
846.2	金國連	신라	唐		
847	일본인 神御井 등	唐 明州	일본		
847.6	신라인 張支信등 37인	唐 明州	일본		肥前國 值嘉島 도착, 惠運·仁好·惠萼 동승
847.9	신라인 金珍외 44인	唐 蘇州	일본		圓仁, 惟正, 性海, 丁雄万 동승
849.8	唐商人 53인	唐	일본		
848.12	대사 王文矩 부사 烏孝愼외 100인	발해	일본		能登國 도착
850	元弘	신라	唐		佛經, 物牙 지참귀국
852	唐客 徐公祐	唐 明州	일본		大宰府 도착
852	新羅商人 欽良暉	唐	일본		
856	圓朗禪師 동행	신라	唐	賀正	
856	唐人 秀英覺, 陳太信	唐 廣州	일본		
858	了悟禪師 동행	신라	唐		
858.6	발해인 李延孝	唐 明州	일본		圓珍 동승, 值嘉島 도착
859.1	烏孝愼외 104인	발해	일본		加賀國 도착
861.1	대사 李居正외 104인	발해	일본		出雲國 嶋根郡 도착
862	富良	신라	唐		7월 본국출발, 8월 入唐도중 의사
862.7	李延孝 등 43인	唐 明州	일본		

시 기	항 해 자	출발지	도착지	목 적	내 용
863	新羅商人 張支信	唐	일본		賢眞, 惠芴, 忠全 등 동승
864		신라	唐	告哀, 請冊封	
864	唐商 詹景全	唐	일본		
869	金胤, 李同 등 동행	신라	唐	謝恩, 國학생 입학요청	馬·金銀·牛黃 등 헌상, 國학생 입학요청, 7월 본국출발
870	金因, 金繁榮, 朗空大師 동행	신라	唐	宿衛	2월 본국출발
871.12	대사 楊成規 부사 李興晟외 105인	발해	일본		加賀國 도착
873	崔宗佐, 大陳潤, 門孫宰 등 60인	발해	唐	徐州平定축하	2척의 배, 日本 薩摩國 甌嶋郡 漂着, 本국송환
876		신라	唐		7월 본국출발
876.12	대사 楊中遠외 105인	발해	일본		出雲國 嶋根郡 도착
878		신라	唐		7월 본국출발, 황소의 난으로 중단
882	金直諫, 朴仁範	신라	唐		
882.11	대사 裴燧 부사 高周封외 105인	발해	일본		加賀國 도착
884	金仁圭	신라	唐		최치원 동행 귀국
885	金僅, 金茂先·崔渙 등 동행	신라	唐	황소의 난 평정경하, 國학생 입학요청	10월 본국 출발, 唐帝 勅書 2통 수령, 金紹遊 등 동행 귀국
891	崔元, 崔雲·先覺大師 동행	신라	唐	昭宗登極 慶賀, 숙위 학생 입학요청	초봄 본국 출발
892.1	王龜謀외 105인	발해	일본		出雲國 도착
893	金處誨	신라	唐	納旌節	入唐도중 의사
893	金峻, 崔致遠	신라	唐	告奏, 賀正	도로블통 還國
894.12	대사 裴燧외 105인	발해	일본		伯耆國 도착
896		신라	唐	崔藝熙, 眞澈大師 동행	
897	金穎	신라	唐	賀正, 告讓位, 숙위 학생 입학 및 방환 요청	
897.7	왕자 大封裔	발해	唐	賀正, 발해의 신라상석 요청	
진성왕대	良貝	신라	唐		
효공왕대초		신라	唐	謝恩, 告嗣位	
906	재상 烏炤度	발해	唐	寶貢料 석차 변경 요청	
908.1	대사 裴璆	발해	일본		伯耆國 도착
919.11	대사 裴璆외 105인	발해	일본		越前國 도착
929.12	대사 裴璆외 93인	東丹國	일본		丹後國 竹野郡 大津浜 도착